

고령사회의 사회통합적 여가활성화 방안

Promoting Leisure and Social Integration for an Aging Korea

1. 들어가는 말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6년 현재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9.5%에서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평균수명(2005년)은 남자는 74.8세, 여자는 81.5세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5).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소노인이 증가하고,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여가생활 욕구가 증대한다. 특히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는 고독감·소외감을 경감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적극적 여가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나, 젊은 노인층일수록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났다.¹⁾ 또한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약 2/3가 초등학교

1)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오 영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나, 미래 노인들은 절반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²⁾ 한편 노인이 의존적 존재라는 부정적 선입견에 대하여 일반인의 약 1/2 정도만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³⁾.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니어서 노인에 대한 불리한 선입견은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이미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장된 노년기를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내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여가문화를 정립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

1) 노인 여가활동 현황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노인은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저조하고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이 낮다. 2004년도 전국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장 즐거움(보람)을 느꼈던 활동은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29.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친구 만남·친가방문·동호인모임 등 사교활동으로 21.7%이며,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보기가 9.5%, 종교활동 5.1% 등으로 적극적 여가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⁴⁾. 또한 사회단체종류별 참여율을 보면, 전체응답 노인의 47.9%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교단체에는 35.5%, 운동단체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 0.9% 등으로 대부분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표 1 참조).

- 2) 정경희·오영희,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및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2000, 2.
- 3) 일반인의 노인에 대한 의식을 보면, 부정적 이미지를 언급한 비율의 경우 신체적(의존적: 54.5%), 지적(독단적: 55.1%), 정서적(비관적: 48.6%), 경제적(의존적: 59.3%) 영역 중 경제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높음(정경희 외, 2005).
- 4)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종류별 가입률

(단위: %)

구분	종교단체	문화활동 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대상자수)
비율	47.9	0.9	3.9	35.5	2.1	(3,029)

자료: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구성.

본원적 의미의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공연장, 전시장, 스포츠)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으로 20대 이하는 약 78% 수준이나 점차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0.8%로 15세 이상 인구의 관람율(51.0%)의 1/5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2 참조).

표 2. 15세 이상 인구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단위: %)

구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비율	51.0	77.6	78.0	61.4	46.4	30.8	13.9	(10.8)

자료: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이는 현재 노인들은 일을 위주로 생활해왔고, 여가시간은 곧 다른 일을 위한 휴식시간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과 문화향유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의 욕구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40세 이상 인구의 여가활동방법을 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컴퓨터게임·PC통신, 자기계발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노인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2) 노인 평생교육 현황 및 문제점

2004년도 전국조사 자료에서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교육(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보면,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8.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4.8%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체노인의 87.1%는 참가

표 3. 40세 이상 인구의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용방법

(단위: %)

연령	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관람	스포츠	컴퓨터 · PC	자기 계발	사고 관련	가족과 함께	가사일	휴식 · 수면	기타
40~49세	100.0	26.6	7.3	0.8	6.0	2.4	0.9	7.3	11.1	15.8	16.3	5.5
50~59세	100.0	30.2	6.9	0.4	4.7	1.0	0.7	9.1	7.0	16.3	18.7	5.0
60세 이상	100.0	33.1	2.7	0.1	2.7	0.4	0.2	12.4	5.7	15.8	22.7	4.2

자료: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경험이 없다. 향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희망률은 19.9%로 전체 노인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한편 현재 노인교육은 여가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노인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여 저연령 노인층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한 자기계발,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과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노인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하며 기존시설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다⁵⁾. 그리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비율은 매우 저조하여 OECD 평균(35.6%)의 절반 수준인 17.2%에 불과하다(OECD, 2002).

표 4.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희망률

(단위: %)

구분	현재 참여 경험			계	(명)	향후 참여희망률
	현재 참여	과거 참여	참여 경험 없음			
비율	4.8	8.1	87.1	100.0	(3,029)	19.9

자료: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구성.

향후 교육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 자기계발욕구가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상승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교육 중심의 사회에서 평생교육사회로 전환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노인이 사회에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경희 외,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3) 노인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문제점

2004년도 전국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4.0%,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10.7%로 자원봉사경험률이 매우 낮으며, 참가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85.3%이다. 그러나 향후 자원봉사 참여희망률은 13.0%이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이 복지수혜자가 아니고 공급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회성원이 되는 행위이다. 또한 삶의 의미를 고양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며, 생산적인 노화를 촉진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전문적 경력과 연계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 및 홍보·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건강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 실정이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뿐만 아니라 무급노동도 사회의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5.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향후 참여희망률

(단위: %)

구분	현재 참여 경험			계	(명)	향후 참여희망률
	현재 참여	과거 참여	참여 경험 없음			
비율	4.0	10.7	85.3	100.0	(3,029)	13.0

자료: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구성.

3. 향후 정책 방향

1)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활동적인 노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노인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적인 사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연령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의 시기가 결정되는 연령차별적 사회였다. 즉,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그리고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연령별로 마련되어 있는 연령 분리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이 세가지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가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고, 사회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지역단위별로 문화기관,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인력, 문화교육 교재 등 총괄된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에서 노인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테마 있는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노인세대의 사회문화를 재조명하여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2)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평생학습문화의 정착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층의 교육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요구된다. 즉, 노인특성에 맞는 교과과정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유용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관에서의 노인학습권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따라 대학이 교육서비스 대상으로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등 고령자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고학력 노인들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세대간 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여러세대(아동 성인, 노인)가 동시에 교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훈련 및 보완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이 사회에서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인 사회성원으로 역할을 부여하여 가족, 세대 그리고 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고령사회지도자 과정 개발, 건강관리요원 확충, 경로당 활성화, 노인요양서비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일반적으로 노인은 적극적·창의적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하지만,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에 따라 욕구가 다양화하고, 젊은 노인층일수록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유용한 자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여가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